

### 목어 물과 유머



김정자 언론인 본지 논설위원

물과 유머(humor)는 적어도 영어권에서는 관련이 깊다. 익살 풍자 해학 등 여러 의미가 있는 유머란 단어의 뿌리가 인체의 체액이나 나무의 수액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 'humanus'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의학에서는 체액을 그냥 유머라 부르기도 한다.

사람 몸에는 체액인 그 유머가 별 탈 없이 잘 흘러 다녀야 건강하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유머를 즐길 여유가 생긴다.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는 유머감각의 척도는 이렇게 시작되었던 모양이다.

우리 몸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체액은 성분이 바닷물과 흡사해서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바다에서 찾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몸 안의 모든 세포나 조직들이 바닷물 성질의 체액 속에 편안히 잠긴 채 태초처럼 생명성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몸 안 조직은 체액 덕분에 늘 한결같은 유지를 갈 수 있으나 이 한결같음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물과 공기 등을 계속 공급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물의 경우 수많은 강들이 바다에 맑은 담수를 실어 나르듯 청정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

지구인들은 오래 전부터 맑아야 할 그 담수에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알아채고도 당장 급하지 않아서인지 아직 많은 지역에서 물 귀한 줄 모르고 있다. 특히 한국인은 선진국 사람보다 오히려 물을 많이 쓰고 버린다.

유엔이 올해를 '세계 담수의 해'로 선언한 것도 지금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의 부족에 인류가 주목해 주기를 바라서다.

6개의 숫자 때문에 온 나라가 들쭉거린 '2·8 사태'는 13명의 1등 당첨자를 내고 일단 마감됐다. 하지만 1등 당첨자가 열 명 넘게 나왔다. 사실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황제의 판타지에 사로 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판타지가 지금처럼 계속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로또를 비롯한 복권과 카지노에 대한 집착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2·8 사태' 후에 매스컴은 연일 로또의 부작용을 한탄했고, 입시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훈계하며 한탕주의의 로또를 중지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정부는 로또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당첨자가 안 나올 경우 2회만 이월하기로 하였으나, 푸증을 받고 부랴부랴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율을 대폭 높이려고 하고 있다. 정부도 로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광기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던 것이 틀림없다. 정부가 예상한 로또의 일년 판매액은 세 달이 지나기 전에 이미 초과했다. 매스컴은 이렇듯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무대배를 꾸짖는 한편, 복권 사는 사람들의 '대박' 꿈도 타이트한 이종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우왕좌왕, 우물쭈물하는 것이 측은하기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복권의 한탕주의는 근본적으로 민족국가 내부의 문



### 불자 세상보기

장석만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 우리몸에 싹트고 있는 '한탕주의'

제가 아니라, 전(全)세계적 규모로 진행되는 자본의 불안정성과 관계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를 휘두르는 것은 더 이상 산업 생산성의 성장이 아니라 투기적 지출의 증대이며, 민족국가의 재정통제 기능은 형편없이 축소된 지 오래이다. 고전적 자본주의가 물러나고 '카지노 자본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한탕주의는 예외가 아니라, '카지노 자본주의'의 모범적 윤리라고 할 만하다. 고도의 휘발성을 지닌 자본의 흐름에 민족국가의 권력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중하층 이하의 계층에 속한다. 이들의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보라. 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자존심을 판 대가로 쥐꼬리만한 봉급을 받는 자신에 비해, 부동산 투기와 증권 투자로 순식간에 엄청난 돈을 버는 자들이 있다. 매스컴은 한편으로 영화배우와 스포츠 스타의 천문학적 고수입에 대해 끊임없는 보도하며, 자기가 사는 곳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평범한 이도 그런 스타들과 같이될 수 있다는 코리안 드림

의 '민주주의'를 반복하여 주입한다. 코리안 드림의 비결은 스타처럼 소비하며, 스타와 자신을 일치화하는 것이다. 신용불량자의 대부분은 소비를 자기 정체성의 근거로 삼았던 이들이고, 소비를 자유의 향유로 여겼던 사람들이다. 신용불량자와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예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돈 있다고 땀 흘리는 '불'들도 하나같이 '고스톱' 치듯이 돈을 모은 자가 아니던가? 차이는 그들이 단지 재수가 있었다는 것일 뿐이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5일 동안 몇 십억 원의 '대박' 꿈에 취해서 지낸다. 실망은 하루뿐이다. 그들은 당첨될 경우에 대비하여 행동 강령을 만들고, 분쟁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여 미리 공증을 받아 놓는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세계를 누비면서 돈 쓰는 일로 바쁘다. 누가 이들을 훈계할 것인가? 누가 정부의 무기력을 질타할 것인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일찌감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뻔한 일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참사나 '2·8 사태'를 대면하기 두려워 그런 것일 터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열린마당 남원 실상사 화림원, 금강경결제 회향 지상중계

## 조계종 '간화선 일변도' 위기?

### 간경·참선 동등한 수행 방편

### 불교 세속화 등 승가 치부 공론화

▲경전읽기와 참선은 동등한 수행 방편이 될 수 있는가?-'될 수 있다' 논쟁 참여자들의 공론이다. '경전읽기와 참선은 동등한 공부방법이다. 경전읽기가 참선과 동등한 수행방법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경전 한 구절에 전착하지 말고, 찰나찰나에 드러나는 내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논주 각목, 초기 불전연구원 지도법사), '정혜쌍수(定慧雙修) 차원에서 보면, 경전읽기와 참선은 별개가 아니다. 다만 불교의 핵심사상인 '무아(無我)'와 '연기(緣起)'를 한국불교는 잊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경전읽기가 선행되어야 한다'(재연 스님, 화림원 원감)는 등 간화선 우위에서 비롯된 경전경시 풍토가 '간화선'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수행 방법과 수행자상에 대한 문제제기-논주를 맡은 각목 스님은 "금강경의 핵심은 상(상)의 철폐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아'와 '연기'를 천명

했는데, 한국불교는 생사초월의 근본 자리, 영원한 자아 등 힌두교식의 발상으로 무아를 잊고 있다. 이 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간경결제가 <금강경> 이해에 기여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동화사 강주 해월 스님은 "간경결제가 <금강경> 이해에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강경>의 핵심사상의 철폐라는 것은 옳지 않다. 반야 바라밀이 핵심이다. 상에 묶이지 않는 반야 지혜의 실천을 이루는 것이다"며 반박했다.

증명법사로 나선 통광 스님(쌍계사 강주)은 "상(相)의 철폐와 반야바라밀은 둘이 아니다. 상을 철폐하는 것이 곧 반야바라밀이며, 반야바라밀은 상이 철폐될 때 드러나는 것이다. 무엇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상(相)에 걸리는 것이다"며 논쟁을 마무리 지었다. 한국불교의 세속화 문제도 제기됐다. 도법 스님은 "지금의 수행풍토는

간경결제(看經結制)라는 새로운 결제 방식에 논쟁(論議)이라는 절집 특유의 토론 방식으로 주목을 받은 실상사 금강경결제가 지난 8일 실상사 화림원 강당에서 회향됐다.

<금강경>이 조계종의 소의경전임에도 수행풍토는 지극히 비금강경적이라는 현실 진단에서 시작된 금강경결제는 선(禪)을 절대화하고 '연기' '무아'를 놓친 채 '불성'이나 '여래장'을 '아트만'과 동일시하는 것은 힌두교적 발상이라는 비판 등 다양한 논쟁을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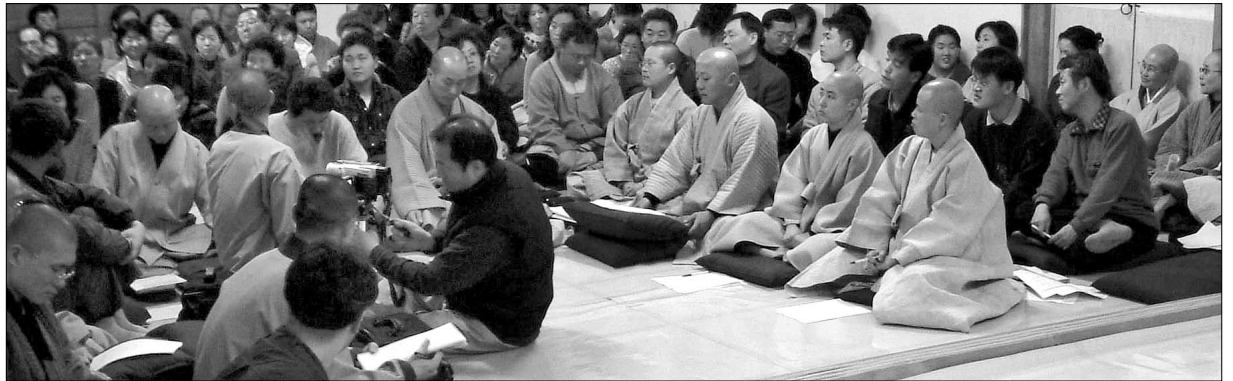
화림원 원감 재연 스님의 자평이다.

반면 도법 스님은 "다소간의 한계와 위험성도 있었다. 특히 현실문제에 대한 의식 민공은 한국불교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못한 채 명쾌한 논리를 세우지 못했다"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간화선 일변도의 수행체계, 깨달음의 절대화 등 한국불교의 수행 풍토와 승가내부의 치부부 과감히 드러냈다는 점, 영혼을 인정하는 천도 및 제사는 금기해야 한다는 주장 등은 한국불교계에서 민감한 문제들을 끄집어내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남원 실상사=김철우 기자

### 25일 '선우논강' 선방수좌 대거참석 수행체계 문제제기 논란 예상

금강경 결제에서 제기된 수행방법 논쟁은 25일 같은 장소에서 '간화선과 율법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를 주제로 열리는 선우논강(대표 화엄)으로 이어진다. 이날 각목 스님은 '간화선에 대한 고언(高言)'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무아(無我) 사상을 진어(眞我) 등의 개념과 동일시하는 '간화선의 힌두화',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여 어느 순간 화두가 터지면 부처가 되는 것으로 돈오론수를 생각하는 '힘의 논리 팽배', 화두만 타파하면 다 된다는 '화두 만능주의', 간화선 권위의 원천인 '대가 스승의 부재' 등 4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남원 실상사 화림원이 '소의경전 금강경으로 조계종의 오늘과내일을 본다'는 주제로 열린 금강경 동양인결제가 지난 8일 회향됐다.

### 불교 수행법, 기업 연수프로그램으로 인기

불교 수행법이 대기업 연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SK 글로벌은 98년부터 동사설 연수를 실시해, 현재 임원진의 90%가 이 연수를 거쳤다. 올해부터는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그룹 계열사 임직원 사이에서도 지원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불교 수행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크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사설이란 대승보살이 중생을 근기에 따라 제도하는 네 가지 방편 중 하나이다.

### 장군축매

### 바가지 상훈, 불교 이미지 흐려

경주 불국사 참배객 중 바가지 상훈 때문에 속살이 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절 안에서 관광 사진 찍어 팔던 사진사가 가족사진을 촬영해 주고는 한 장에 몇 만원씩 내놓으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한 가족들은 다시는 불국사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한다. 사소한 일로 불교와 경주의 이미지를 흐려서는 안 될 것이다.

###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2003학년도

## 제5기 신입생모집 및 영산범패 교육

- 모집인원 : 스님 30명, 일반불자 30명(선착순)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본의식해설
  - 안채비 : 각종 불공의식, 49재, 천도재, 신중작법, 각종 소 낭독하는 법
  - 결채비 : 바라춤, 도랑계, 다계작법(나비춤), 사다리나, 지옥계
- 과 정 : 2년(4학기), 1년 - 기초과정(음악, 요령, 불공, 예불, 사물다루는 법) 2학기
- 수 강 료 : 1학기 6개월 60만원(비디오 교재 별도) ※ 비디오, 테이프, 교재는 학교에 비치
- 입 학 식 : 2003년 3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 통신생 출석 교육 :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시 ~ 일요일 12시까지
- 전 화 : 062)362-8604 / 011)624-8604 / 011)614-8604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동 759-14 (우 502-242)
- 과 정 : 해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전수자)
- 계좌번호 : 농 협 641010-52-005559 (예금주: 이복임)
  - 광주은행 122-121-403070 (예금주: 이복임)

- ※ 스님, 성직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 전화문의 가능
- ※ 불교 예술에 소질이 있으신 분은 후계자 선정, 학비 면제
- ※ 제8회 범패교육 양력 4월 10일 ~ 4월 13일까지 접수바람.
- ※ 제9회 영산범패교육 양력 6월 15일 ~ 18일까지 접수바람

## 호 남 불 교 전 통 의 식 대 학

##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견전지용 초 • 형사소롱 및 손잡이대

### 통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

### 사찰전구

- ▶ 불계대원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 6배(특 월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 불제 견전지용 초

- ▶ 형사소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쟁)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당합니다. (견전지 사용)



##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 2266-2634 • 2263-구입문의 (032) 582-6235-6 2638 http://www.bulje.co.kr 주소: 경기도 김포시 길포동 389-43